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199>

JCCT 2023-3-24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공동체 참여 차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arning Community Participation According to Learner Characteristics

김경희*, 최주영**

KIM KYUNG HEE*, CHOI JOO YOUNG**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습자 특성과 학습공동체 참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공동체 유형은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를 전공기초 학습공동체와 전공심화 학습공동체로 구분하였으며, 학습자 특성을 성별, 학년별, 전공별로 분류하였다. 학습자 특성에 따른 전공기초 학습공동체와 전공심화 학습공동체 참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의 전공기초 학습공동체, 전공심화 학습공동체 참여가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학습 공동체 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기초 학습공동체의 경우 1학년과 2학년의 참여 비율이, 전공심화 학습공동체의 경우 3학년과 4학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공기초 학습공동체와 전공심화 학습공동체 모두에서 보건복지대학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학습자 특성, 학습공동체, 교과형 학습공동체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learning communi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To this end, the learning community divided the subject-linked learning community into a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 and an advanced learning community. Learner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by gender, grade, and major. A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participation in the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 and the advanced learning community according to the learner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tion of female students in the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 and the advanced learning community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ticipation in the learning community according to the grade. In the case of the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first and second year students was relatively high, and in the case of the advanced learning community, the ratio of the third and fourth year students was relatively high.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by major,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rate of health and welfare universities was high in both the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 and the advanced learning community. Based on these result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are presented.

Key words : College Student, Learner Characteristics, Learning Community, Subject-linked Learning Community

*정희원,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전남대학교 강사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3월 2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9일

Received: January 30, 2023 / Revised: March 2, 2023

Accepted: March 9, 2023

**Corresponding Author: qldkfzb2@naver.com

Lecturer, Chonnam National Univ, Korea

1. 서론

다양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학생들이 단순히 많은 양의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근 ‘협력적 문제해결능력(Collaborative Problem Solving)’이 21세기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식을 창출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협력적인 지식창출이 중요시 되고 있다[1]. 대학에서도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2],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학습 성과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습한 결과 얻게 되는 개인적 변화 또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습 성과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3,4]. 대학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학습경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수와 학생 간에 학문적 지식이나 성과가 전파되며 지적 능력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김경희, 5,6].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교육적 경험으로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학생들 간의 상호협동, 능동적 학습, 즉시적 피드백, 학습에 투입된 시간, 학업성취에 대한 교사의 높은 기대, 다양한 학습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7]. 이와 같은 교육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이다.

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내부에서 또 다른 지식을 생산해 내고, 그렇게 생산된 지식을 다시 전달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성격을 전제로 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학습공동체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며, 새로운 지식 창출, 개인과 집단의 성장촉진, 협력연구 또는 학술적인 집단 학습이라고 정의한다[8]. 즉 학습공동체는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학습 욕구를 충족하는 학습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9].

학습공동체는 대학 내의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학습 성과 향상과 인재양성을 위해 운영중인 대표적 비교과 프로그램이다[10]. 학습공동체는 특성, 참여자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중심 학습공동체, 수업중심 학습공동체, 거주지역중심 학습공동체, 학생 유형중심 학습공동체로 구분된다[11]. 국내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습공동체는 교과목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교과형 학습공동체와 교과목과는 관련이 없지만 특정 주제나 관심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교과형 학습공동체로 구분될 수 있다[12]. 국내 대학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학습공동체는 교과형 학습공동체로 이는 3~7명의 학생들이 모여 교과목이나 관심분야에 대한 학습과 정보공유를 하는 교과형 학습공동체로 교과목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해 학습 과제를 해결하면서 전공 기초, 전공 심화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지식과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3].

대학교육개발협의회에 따르면 학습공동체는 국내 90% 이상의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10]. 학습공동체의 양적 확대에 따라 최근에는 학습공동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접목하고 있다[14]. 선행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가 학업 능력 향상, 인지적 능력 향상, 사회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 학교 만족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17,18]. 또 학습공동체 참여와 함께 교수 면담, 상담을 제공 받은 학생들은 학습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학습공동체 참여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 참여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협력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21].

이러한 결과는 학습공동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Pascarella는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개인 특성에 따라 대학 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2].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학생의 성별, 전공 계열에 따라 학습공동체 참여에 따른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공동체의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구성원 특

성을 고려하는 것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2,23].

대학생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생의 개인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별, 학년, 전공 등의 학습자 특성이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일차적으로 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학생 개인 특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24,25]. 성별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의 학습참여가 여학생보다 높았던 연구도 있었지만 고장환, 김현진, 김명숙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학습참여가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Marks, Porter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27,28]. 학년과 학습참여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능동적 학습참여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능동적 협동적 학습참여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26,27,28,29]. 다음으로 학생의 전공과 관련하여 최정윤과 신혜숙의 연구에서는 다섯 개 단과대학으로 분류 후 인문대학에 비해 사범대학과 사회대학의 학생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다고 나타났으며, 전공을 인문사회와 이공계열로 분류한 유현숙의 연구에서는 이공계열 학생의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31,32]. 이러한 차이는 학습공동체 참여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학습공동체의 질적 도모를 위하여 다양한 학년과 전공의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3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별, 학년, 단과대학 별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른 학습공동체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학습공동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만약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학습공동체 참여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학습공동체 참여 뿐만 아니라 학습 성과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학습공동체 운영에 이러한 결과들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학습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학습공동체 참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습공동체의 모습 중에서 교과형 학습공동체를 전공기초 학습공동체와 전공심화 학습공동체로 유형을 구분하여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전공별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기초 교과형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전공별 참여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전공심화 교과형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전공별 참여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학습공동체 운영 절차

이 연구에서는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전공 학습을 돕기 위하여 정규 교과학습 외로 진행되는 교과형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다. 교과형 학습공동체는 매학기 초 전체 대학 구성원에서 공지하였으며, 교수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참여교수는 교과형 학습공동체의 유형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참여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를 반영하여 전공기초(전공기초 및 기초학습 능력 중심) 및 전공심화(문제해결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력 개발)에 부합하는 주제와 내용, 교수방법 등을 기술하여 주차별 학습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교수학습센터에서는 각 신청서의 학습주제와 목표, 내용 구성이 교과형 학습공동체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팀 구성의 적절성, 운영의 현실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팀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를 전공기초 학습공동체와 전공심화 학습공동체로 구분하였는데, 전공기초 학습공동체에서는 전공기초 및 전공 수학적능력을 위한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공심화 학습공동체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력과 같은 학습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였다.

선정된 학습공동체 참여교수 간담회를 진행 후 9주의 교과형 전공기초 및 전공심화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며, 운영시간은 총 24시간 이상으로 일과 내 혹은 일과 이후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사후 평가회 및 우수사례 공유회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1학년 2학기 G지역 소재의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57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구분		N	%
성별	남	255	44.6
	여	317	55.4
학년	1학년	138	24.1
	2학년	170	29.7
	3학년	122	21.3
	4학년	142	24.8
단과대학	공과대학	27	4.7
	보건복지대학	307	53.7
	사회과학대학	154	26.9
	에너지융합대학	35	6.1
	한의과대학	49	8.6
전체		572	100.0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참여학생 특성별 교과형 전공기초, 전공심화 학습공동체 참여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교과연계형 전공기초, 전공심화 학습공동체 참여를 살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참여가 높았다. 참여학생 성별에 따른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참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성별에 따른 차이
Table 2. Differences by gender

구분		전공기초	전공심화
성별	남	140(43.5)	115(46.0)
	여	182(56.5)	135(54.0)
전체		322(100.0)	250(100.0)

$\chi^2=.362(df=1)$

2. 학년에 따른 차이

학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학년에 따른 전공기초 및 전공심화 참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86.000, p<.001$). 전공기초에서는 2학년(46.9%)과 1학년(41.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공심화에서는 4학년(56.4%)과 3학년(34.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년에 따라 참여하는 프로그램 유형에 차이가 있으며, 전공기초는 2학년, 전공심화는 4학년의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 학년에 따른 차이
Table 3. Differences by grade

구분		전공기초	전공심화
학년	1학년	135(41.9)	3(1.2)
	2학년	151(46.9)	19(7.6)
	3학년	35(10.9)	87(34.8)
	4학년	1(0.3)	141(56.4)
전체		322(100.0)	250(100.0)

$\chi^2=386.000(df=3, p<.001)$

3. 전공에 따른 차이

전공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전공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6.948, p<.001$). 전공기초에서는 보건복지대학(54.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공심화에서도 보건복지대학(52.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전공에 따라 참여하는 프로그램 유형에 차이가 있으며, 전공기초와 전공심화 모두에서 보건복지대학, 사회문화대학의 비율이 높았다. 위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의 전공에 따라 교과연계형 학습공동체 전공기초, 전공심화에 참여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성별에 따른 차이
Table 4. Differences by major

구분		전공기초	전공심화
전공	공과대학	27(8.4)	0(0.0)
	보건복지대학	176(54.7)	131(52.4)
	사회과학대학	62(19.3)	92(36.8)
	에너지융합대학	35(10.9)	0(0.0)
	한의과대학	22(6.8)	27(10.8)

All	322(100.0)	250(100.0)
-----	------------	------------

$\chi^2=56.948(df=4, p<.001)$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에 따라 교과형 학습공동체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형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학습자의 성별 교과형 학습공동체 참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공기초 학습공동체에는 여학생의 참여 비율이 높고, 전공심화 학습공동체에서도 여학생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참여가 높다는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27,28]. 참여 학생 성별에 따른 교과형 학습공동체 참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학습 환경의 지각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각각도의 분석이 요구된다[34]. 이러한 성별에 따른 학습공동체의 차이는 학업성취나 학습 성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체 대학 차원의 학생 대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실시 등의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학년별 참여를 살펴보면, 전공기초 학습공동체에서는 2학년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학년, 3학년, 4학년이 될수록 참여가 낮아졌다. 전공심화 학습공동체에서는 4학년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학년, 2학년, 1학년이 될수록 참여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의 학년에 따라 교과형 학습공동체의 전공기초와 전공심화 유형 참여에 차이가 있었다. 교과형 전공기초의 경우 2학년과 1학년의 참여가 높은 것은 대학에서의 전공학습에 대한 기초 이해와 교수자의 안내와 촉진이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과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전공 적응, 학업 적응, 대학 구성원 간의 적응 등의 다양한 과업을 요구받음과 동시에 성공적 적응을 위해서는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리적 지지와 친밀감 형성과 학생-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정보 공유 등이 요구되기 때문 학습공동체가 이러한 대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교과형 전공심화 학습공동체의 경우 고학년의 순으로 참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전공분야의 기초학습을 거쳐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심화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창출해 내는 융복합적 실천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전공분야에서 심화된 지식 습득과 이해,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전공별 맞춤형 교수법, 맞춤형 학습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교과형 학습공동체 전공별 참여를 살펴보면, 보건복지계열의 참여가 높았다. 전공기초 학습공동체에서는 보건복지계열, 사회문화계열, 에너지융합계열, 공과계열, 한의과계열의 순으로 참여가 나타났다. 전공심화 학습공동체에서는 보건복지계열, 사회문화계열, 한의과계열의 순으로 참여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섯 개 단과대학으로 분류 후 인문계열, 공과계열의 순으로 높은 참여를 보였다고 보고한 최정윤, 신혜숙의 연구,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 중 이공계열의 참여가 높다고 보고한 유현숙의 연구 결과와도 다른 결과이다[30,31,32].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으로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데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의 전공에 따라 교과형 학습공동체 참여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계열의 경우 각 전공들이 특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학과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해당 계열의 학생들이 교과형 전공기초, 전공심화 학습에 참여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만을 표본으로 하고 있어서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다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공동체의 유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과형 학습공동체의 전공기초, 전공심화의 참여 차이만을 살펴보고 있어서 연구결과를

다른 학습공동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Pascarella와 Terenzini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학 운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5].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습공동체 유형의 참여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 학년별, 전공별에 따라 교과형 학습공동체 참여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부 일치하거나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학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각 학습자의 특성이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대학은 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전공별에 관심을 기울이고[36], 학생들의 요구 분석과 이에 따른 교과 및 비교과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실행, 평가, 환류의 과정을 거쳐 더 나은 학습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의 대학에서 경험한 교육, 대학의 교육환경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학습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다각적인 고려와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37].

다섯째,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습공동체와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성과를 발굴하여 교내 구성원들과 공유 확산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에 따라 대학생의 교과형 학습공동체 참여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과형 학습공동체 유형을 전공기초, 전공심화로 분류하였으며, 학습자 개인은 성별, 학년별, 전공별로 분류하여 학습공동체 참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습자 특성에 따라 학습공동체 참여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일반화에 대

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대학 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학습자 특성이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학습자의 특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다양한 학습공동체 유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S. Kim, "An Ethnographic Case study on Interaction and Learning Strategy in Course-Linked Learning Community Instruction of Junior Colleg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38, No.4, pp.161-185, 2006.
- [2] S. Y. Yang, Y. S. Park, M. S. Jung, H. A. Ahn, and K. Y. Kim, "The Effects of Learning Community on College Students' Core Competency and Learning Competency," Vol.18, No.9, pp.141-164, 2018.
- [3] Nusche, D. "Assessment of Learning Outcomes i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Review of Selecter Practice," OECD Education Working Paper, Paris: OECD Publications, 2007.
- [4] J. Y. Jung, "The Exploratory Study on Learning Outcomes of Teachers' College Students,"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39, No.4, pp. 31-55, 2018.
- [5] A. W. Chickering, and L. Reisser, *Education and identity*(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1993.
- [6] K. H. Kim,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Teaching-Friendly Learning Activitie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8, No.6, pp.397-404, 2022.
- [7] A. W. Chickering, and Z. F. Gamson, "Seven principles for good practice in undergraduate education," *AAHE Bulletin*, Vol.39, No.7, pp.3-7, 1987.
- [8] P. M. McCarver, "What a learning community learns: A cooperative inquiry.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What a learning community learns: A cooperative inquiry,"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Doctoral thesis, an Francisco, California, 2003.
- [9] D. L. Rogers, and L. M. Babinski, "From isolation to conversation: Supporting new teachers' development," New York: Suny Press,

- pp.1–24, 2002.
- [10]E. Y. Kim, and A. R. Kim,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aning of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in college students: Focused on continuous participants of the Study group progra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3, No.5, pp. 91–119, 2013.
- [11]O. T. Lenning, and L. H. Ebbers, “The Powerful Potential of Learning Communities: Improving Education for the Future,” U.S.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Report, pp.1–173, 1999.
- [12]J. H. Yoon, Y. J. Park. T. H. Kim, and Y. H. Lee, “A Case Analysis o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xtracurricular Learning Community Program Model of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6, No. 4, pp.141–164, 2020. <https://doi.org/10.24159/joec.2020.26.4.141>
- [13]S. Y. Jang, and N. R. Kim, “The relationships of Problem solving ability, Learning strategies,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School achievement in the Learning community of majored engineer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5, No.3, pp.581–602, 2013. <https://doi.org/10.17927/tkjems.2013.25.3.581>
- [14]M. J. Kim, and E. H. Seo. “The Effect of Learning Community with Peer Review on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9, pp.1033–1052, 2020.
- [15]J. H. Yu, “The Effects of Learning Communities on Learning Strategies, Collaborative Self-efficacy and School achieve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9, pp. 187–206, 2016. <https://doi.org/10.22251/jlcci.2016.16.9.187>
- [16]S. D. Lee, and G. Y. Kim, “Effects of Learning Community Activity on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2, pp.8249–8261, 2015.
- [17]S. H. Park, “The Impact of Learning Communities on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bilitie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11, No.4, pp.115–136, 2015.
- [18]M. S. Jang, Y. S. Park, H. A. Ahn, and K. Y. Kim, “The Influence of Learning Community on Professional Competence and Attitude for College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5, pp.373–399, 2017.
- [19]D. H. Park, “Analyzing the Effects of One-to-One Learning Community for College Undergraduate Students on Low Achieve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6, pp.375–402, 2017.
- [20]B. R. Cho, “The Effect of Learning Community Program Participation on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and Cooperative Learning Competen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5, pp.43–54, 2020.
- [21]M. J. Kim, and E. H. Seo, “The Effect of Learning Community with Peer Review on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9, pp.1033–1052, 2020.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9.1033>
- [22]E. T. Pascarella,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Ten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47, No.5, pp.508–520, 2006.
- [23]H. A. Ahn, Y. S. Park K. H. Kim, and M. S. Jang “The effect of types of peer tutoring program on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10, pp.357–377, 2016. <https://doi.org/10.22251/jlcci.2016.16.10.357>
- [24]S. M. Byeon, S. H. Park, and H. W. Lee, “The Effect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Student Satisfaction with Major Classes on Cognitive Learning Performance: Focusing on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6, pp.863–880, 2021.
- [25]I. R. Lim, J. J. Lee, and J. Y. Kim, “An Analysis of Competency among Learning Community Participants Depending on their Performance—Focusing on the Comparisons between High and Ordinary Performer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6, No.2, pp.373–389, 2022.
- [26]J. W. Ko, H. J. Kim, and M. S. Kim, “The Impact of students’College Experiences on Students’ Cognitive and Non-cognitive Outcomes, and Instructional Satisfactio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29, No.4, pp. 169–194, 2011.
- [27]H. M. Marks, “Student engagement in instructional activity: Patterns in the

-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37, No.1, pp.153-184, 2000.
- [28] S. R. Porter,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student engage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47, No.5, pp.521-558, 2006.
- [29] S. H. Bae, H. Y. Jang, H. J. Kim, and H. D. Song, *Korean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Korea, pp.1-112, 2013.
- [30] J. Y. Choi, and H. S. Shin, “The Nature and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on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in Korean Universities: Focusing on Effects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 Education*, Vol.37, No.2, pp.131-154, 2010. <https://doi.org/10.22804/jke.2010.37.2.006>
- [31] H. S. Yu, H. N. Lim, J. Y. Choi, Y. I. Seo, H. S. Shin, and J. W. Ko, *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for Korean Universitie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orea, pp.1-304, 2012.
- [32] H. S. Yu, J. Y. Choi, J. M. Lee, M. H. Kim, H. J. Byeon, and B. K. Choi, *Strategic Planning for the Advancement of the Teaching-Learning Quality in Higher Education (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orea, pp.1-399, 2013.
- [33] S. Y. Kim, “The Effect of K University’s Learning Community Participation on Students’ Academics, Social Relationships, and College Adjustm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3, pp.1063-1078, 2021.
- [34] S. R. Kwak, “The effects of school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47, No.3, pp.93-120, Jan, 2009.
- [35] E. T. Pascarella, and P. T. Terenzini,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2005.
- [36] J. Y. Choi, and B. S. Lee, “Examining Factors Related to College Students’ Learning Outcomes: Focusing on Effects of Colleg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27, No.1, pp.199-222, 2009.
- [37] S. J. Lee, S. H. Kim, and H. K. Kim,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High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Vol.5, No.2, pp.143-166, 2016.